

동계아시안게임과 첫번째 '무형문화유산 설날'의 만남



▲ 동계아시안게임과 '무형문화유산 설날'의 만남 인문교류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레빈들이 CMG 스튜디오에 모여 설날을 경험하고 있다.

2월 10일,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할빈에서 열리는 동안 첫 '무형문화유산 설날'을 맞이하는 이색적인 인문교류 행사가 '얼음의 도시'로 불리는

할빈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몽골·타이·필리핀·월남·인도·네팔 등 국가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참여해 명절의 활기찬 분위기를 함께 누렸다.

조각예술박람회 설치된 중앙방송중국(CMG)의 스튜디오에 모여 빙설 속에서 함께 새해를 경축했다. 동계아시안게임은 다양한 문명의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스포츠 무대이며 음력설은 중국인들이 전통 새해를 경축하는 사회적 실천이다. 얼마전, 음력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정식으로 등재된 가운데 올해 을사년 설날은 첫번째 '무형문화유산 버젓'의 설이다.

중국 음력 정월대보름을 맞아 CMG 스튜디오 밖의 스키장에서 2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 양결팀이 각국 손님들에게 환영 가무를 열정적으로 선보였다. 외빈들의 정서는 징과 북의 리듬에 따라 점차 고조되었고 잇달아 양결 대렬에 합류해 함께 즐겼다.

외빈들은 이어서 얼음판화, 설화화, 밀짚화, 전지공예 등 무형문화유산 제작기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제작했으며 얼군 배와 감을 맛보고 원소를 만드는 즐거움을 체험하는 등 중국 설날의 풍습을 체험하면서 무형문화유산 설날을 공유했다.

음력설은 중국인들이 전통 새해를 경축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세계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새로운 시대 중국인들이 뜨겁게 건설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는 독특한 인류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고 있다. 행사에서 각국 귀빈들은 CMG 아시아아프리카지역방송센터의 창작곡 <중국을 산책하다>를 함께 부르며 세계 각국의 현대화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 /중국국제방송

호준아 코치가 말하는 태지은의 성장 이야기

- 천부에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깃든 결과



▲ 호준아가 학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에 진행된 제9회 할빈동계아시안게임에서 속도스케트 여자 3,000미터 결승에서 19살 나이는 연번적 태지은이 동메달을 획득했고 동료 선수 양민유와 한매가 각각 금, 은메달을 따냈다.

도문시에서 출생한 태지은은 어려서부터 스케트를 매우 좋아했으며 이로 하여 도문시청소년아마추어체육학교 속도스케트 코치 호준아의 눈에 들어 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 2017년에 태지은은 우수한 활약으로 김립성체육운동학교에 선발, 수송되었다. 태지은의 전 코치로서 호준아는 태지은이 거둔 성적에 대해 매우 흠족해하면서 이렇게

말 수 있게 하였다. 스케트를 가르치면서 호준아는 태지은은 속도스케트에 천부가 있고 조금만 이끌어주면 인츰 동작 요령을 이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모들이 외지에 있어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긴 했지만 태지은은 전혀 응석을 부리지 않았고 힘든 훈련을 자물적으로 소화하였다. 매번 훈련시 태지은은 번마다 반신간 먼저 나왔고 훈련할 때도 태도가 진지하였다. 훈련일이 아니어도 그는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할머니와 함께 공원에서 훈련을 견지하였다. 겨울에는 속도스케트를, 여름에는 롤러스케트를 연습하였는데 거의 모

든 시간을 속도스케트에 쏟아부었다. 노력은 헛되지 않는다고 속도스케트에 대한 태지은의 재능은 점차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그는 주급, 성급 경기에서 앞자리를 차지해 최후 김립성체육운동학교에 선발되었다. 이후 그는 주급, 성급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



호준아는 태지은의 첫 만남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때 그는 금방 도문시체육학교에 와서 속도스케트 코치를 맡았으며 두만강변에서 학원들을 훈련시키던 중 그 당시 소학교에 다니던 태지은이 외할머니와 함께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지은이가 속도스케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주동적으로 호준아에게 태지은이 체육학교에 갈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때의 태지은은 키가 크지 않았고 속도스케트에서 우세가 없었다. 하지만 다년간의 속도스케트 훈련 경험만 있는 호준아는 열정야말로 꿈을 펼칠 수 있는 날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태지은을 체육학교에 데려와 속도스케트를 배

고 2022-2023 시즌 전국속도스케트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으며 2023-2024 시즌 전국속도스케트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태지은은 속도스케트 여자 3,000미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호준아는 줄곧 태지은의 성장 궤적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바 그가 거둔 성적을 지켜보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지은이 앞으로 계속해 더욱 우수한 성적을 따내 조국을 위해 영광을 따내고 연변을 빛내주기를 희망하였다. /연변조간신문

시민과 관광객 어우러져 다민족 문화와 민속 체험

2월 12일 정월대보름날, 연길시에 위치한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는 다채로운 민속축제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많은 시민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참여해 명절의 활기찬 분위기를 함께 누렸다.



업체들은 관광객들이 이 전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섯가지 곡식으로 만든 오곡밥, 튀긴 원소, 막걸리 등을 무료로 제공해 환영을 받았다. 중국조선족민속원 운영총괄 주보근은 인터뷰에서 "이번 민속 행사를 통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중화민족의 결집력과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중화민족 한가족의

융합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한층 더 확고히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는 조선족의 전통문화를 선보인 동시에 여러 민족 관광객들을 위해 교류와 체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족간의 우호적인 교류를 한층 더 증진하면서 중국의 풍부한 다민족 문화와 깊은 명절 전통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김파기자 /사진 김홍석 리해본

오전 10시, 민속원내에서 화려한 민속 행진 공연이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전통 조선족 의상을 입은 연가자들이 노래와 춤으로 열정을 뽐내며 행렬을 이뤘고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합류해 명절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어 작은 광장에서는 달타령, 활춤, 가야금합주 등 조선족 전통 공연이 륙속 펼쳐지면서 관광객들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조선족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항주에서 온 관광객 오구녀사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우연히 만나 조선족 전통 공연을 보고 현지에서 빛나는 막걸리도 맛보며 진한 민속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관광객들 모두 이에 공감하며 조선족 전통문화의 향연에 푹 빠져 민속의 정취를 만끽했다.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귀밭이슬을 마시는 조선족 전통 풍습이 있다. 오곡밥은 다섯가지 곡물을 섞어 지은 밥으로 예로부터 새해에 '곡식이 잘 자라도록 기운을 모으는 음식'으로 여겨졌고 귀밭이슬은 귀가 밝아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속원내 일부



연길공항, 려객과 함께 즐긴 정월대보름축제



2월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명절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길공항 분공사는 '려객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축제, 한마음으로 단란한 설을 보내자'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 공항을 리용하는 려객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정월대보름을 즐겼다.

행사 당일, 장고춤 <명절의 기쁨>과 민속무용 <장백산 찬가>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현장에 있던 려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너도나도 휴대폰으로 특별한 순간을 기록했다.

상해에서 온 려객 진씨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런 멋진 민속 공연을 보게 되어 너무 기뻐다."며 "려객중인

데 연길공항에서 특별한 명절 분위기를 느꼈고 공항에서부터 이미 연변의 민속문화 매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길공항 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음력설 려객운수 기간 공항은 주요 절차를 최적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려객에게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다채로운 특색 문화행사를 통해 려객에게 따뜻한 서비스를 선사함으로써 연길공항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연변의 우수한 관광 창구 봉사 이미지를 구축함과 더불어 그룹사의 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조력하고 있다. /연변조간신문

정월에 리발을 하지 않는다? 알고보니...

우리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정월에 리발을 하지 않는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배후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24절기보호전승련맹 사무총장 당지강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한가지 견해가 있다. 청나라 군대가 관내에 들어간 후 청나라 정부가 '단발' 조서를 발표하자 일부 사람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단발을 거부했는데 이와 더불어 정월에 단발을 하지 않는 것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思旧)'이라는 설이 서서히 등장했다. 나중에 점차 와전되어 "정월에 리발하면 외삼촌이 죽는다."는 말로 변했지만 이 주장 뒤에는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관란 사회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다. 더구나 음력설 려후가 오기 전 사



람들이 선달에 리발과 목욕을 하고 새옷으로 갈아입어 이미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의식을 마쳤기 때문에 정월에는 자연스럽게 더 이상 리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인민넷 - 조문판